

1. 수요의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격 변화시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.
- ② 열등재의 경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있어 소득 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항상 크다.
- ③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반면에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.
- ④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만을 나타낸다.

2. 사적재(private goods)인 X재 시장에는 개별수요함수가 $P=10-40Q$ 인 소비자가 20명 존재하고, 개별공급함수가 $P=4+80Q$ 인 공급자가 40명 존재한다. X재의 시장균형가격은? (단, P는 가격, Q는 수량이다.)

- ① 5
- ② 6
- ③ 7
- ④ 8

3.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.
-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필수재는 사치재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.
- ③ 월간 지하철 탑승수요의 요금탄력성은 연간 지하철 탑승수요의 요금탄력성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.
- ④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.

4.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.

$$Q^D = 5 - P$$

$$Q^S = -1 + P$$

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? (단, Q^D 는 수요량, Q^S 는 공급량, P는 가격이고,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시한다.)

- ① $\frac{1}{3}$
- ② $\frac{1}{2}$
- ③ $\frac{2}{3}$
- ④ $\frac{3}{2}$

5. 정부가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.
- ② 소비자와 생산자간 조세로 인한 부담은 그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와 무관하다.
- ③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작다.
- ④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 모두 증가한다.

6. 양(+)의 효용을 주는 두 재화(X재와 Y재)의 소비에 있어 무차별곡선 관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선호체계의 연속성에 위배된다.
- ②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은 보다 큰 효용수준을 나타낸다.
- ③ X재와 Y재가 완전보완관계이면 효용극대화 소비점에서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X재와 Y재가 완전대체관계이면 예산선 위의 모든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달성될 수도 있다.

7. X재와 Y재만 이용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

효용함수는 $U(x, y) = x^{\frac{1}{2}} y^{\frac{1}{2}}$ 이다. 이 소비자의 소득은 120이고, X재 가격이 2, Y재 가격이 4라고 할 때 X재와 Y재의 최적소비량은? (단,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 소비량이다.)

	x	y
①	20	20
②	30	15
③	40	10
④	50	20

8. 기업 A의 생산함수는 $Q=5L^{0.4}K^{0.6}$ 이다. 기업 A의 노동량과 자본량이 각각 $L=1$ 과 $K=1$ 일 때, 자본의 한계생산물(MP_K)과 자본의 평균생산물(AP_K)은? (단, Q는 생산량, L은 노동량, K는 자본량이다.)

	MP_K	AP_K
①	1	1
②	2	4
③	3	5
④	5	3

9. 기업 A의 생산함수가 $Q = 2L + 4K$ 이다. L 의 가격이 2, K 의 가격이 5일 때, $Q = 200$ 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두 생산요소의 투입량은? (단, Q 는 생산량, L 은 노동량, K 는 자본량이다.)

	L	K
①	0	50
②	50	25
③	80	10
④	100	0

10.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생산량이 q^0 일 때 최저가 되며 이후에는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고정비용은 매물비용에 해당한다.)

- ① 생산량이 q^0 보다 큰 경우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크다.
- ②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같거나 작다.
- ③ 생산량이 q^0 일 때의 평균총비용보다 시장균형가격이 낮다면, 이 기업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기에도 시장에서 퇴출한다.
- ④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.

11. 기업 A의 생산함수가 $Q = \min[2L, 3K]$ 이다. 노동의 단위당 임금이 20, 자본의 단위당 임대료가 30일 때, 이 기업의 비용함수는? (단, Q 는 생산량, L 은 노동량, K 는 자본량이다.)

- ① $C = 20Q$
- ② $C = 30Q$
- ③ $C = 40Q$
- ④ $C = 50Q$

12.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고정비용은 매물비용에 해당한다.)

- 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평균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한다.
- ②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 중 평균가변비용곡선 위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.
- ③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0의 이윤을 얻는다.
- ④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고 평균총비용보다 작은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.

13.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개별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$LTC(q_i) = 50q_i - q_i^2 + \frac{1}{20}q_i^3$ 으로 동일하다. 개별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다른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, 장기 균형가격은? (단, q_i 는 기업 i 의 생산량이다.)

- ① 30
- ② 35
- ③ 40
- ④ 45

14.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$Q = 120 - 2P$ 이다.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$C = 100 + Q^2$ 일 때,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? (단, Q 는 수량, P 는 가격이다.)

- ① 15
- ② 20
- ③ 25
- ④ 30

15. 다음 중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별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.
- ② 어느 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장기 균형에서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곡선이 접하기 때문에 이윤은 0이 된다.
- ④ 기업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초과 생산설비를 유지한다.

16. 기업 A와 B는 ‘가격인하’와 ‘가격인상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 두 기업이 동시에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단,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보수이고,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.)

		기업 B	
		가격인하	가격인상
기업 A	가격인하	(5, 5)	(4, 0)
	가격인상	(0, 7)	(6, 6)

- ① 두 기업 모두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한다.
- ② 1개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한다.
- ③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.
- ④ 두 기업 모두 ‘가격인상’을 선택하는 담합이 가능하다.

17. 다음 중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?

- ①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.
- ② 여가가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.
- ③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.
- ④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.

18.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방법 중 하나는 교정적 조세이다.
- ②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.
- ③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.
- ④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주체와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주체간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들 간 협상의 결과는 상이하다.

19. 다음 중 *CPI*와 *GDP*디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*GDP*디플레이터는 당해 연도의 가격을 적용한 명목 *GDP*를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한 실질 *GDP*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.
- ② *CPI*는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표준화된 묶음에 대한 비교 연도의 구입비용을 기준연도의 구입비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.
- ③ *GDP*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 품목들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*CPI*와 다르다.
- ④ *CPI* 측정에 포함되는 품목의 품질 개선은 *CPI*에 반영되지 못하나 품목간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에서의 대체는 *CPI*에 반영된다.

20. 본원통화(monetary base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으로 흘러나온 모든 민간보유현금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계이다.
- ②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자산으로 고성능화폐(high-powered money)라고도 한다.
- ③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- ④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에서 예금창조의 토대가 된다.

21. 법정지급준비율이 10%이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용승수(credit multiplier)는 얼마인가?

- ① 1
- ② 2
- ③ 5
- ④ 10

22. 경찰은행의 대차대조표(balance sheet)가 다음과 같다.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이 10%일 때 경찰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은 얼마인가?

(단위: 원)

차변(자산)		대변(부채)	
지급준비금	1,000,000	예금	8,000,000
대출금	10,000,000	기타 부채	2,000,000
기타 자산	4,000,000	자본금	5,000,000

- ① -200,000 원
- ② 0 원
- ③ 200,000 원
- ④ 800,000 원

23. 교환방정식($MV=PY$)이 성립하는 폐쇄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3%, 통화증가율이 8%, 명목이자율이 10%라고 할 때, 이 경제의 실질경제성장률은? (단, M 은 통화량, P 는 물가, Y 는 실질국민소득, V 는 화폐의 유통속도로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.)

- ① 5%
- ② 7%
- ③ 8%
- ④ 10%

24.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활성잔고(active balance)라고 하고,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유헴잔고(idle balance)라고 한다.
- ②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.
- ③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에서 투기적 화폐수요는 항상 이자율과 양(+)의 관계임을 설명한다.
- ④ 보물의 재고이론에서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.

25. A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,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은? (단, Y 는 국민소득, C 는 소비, I 는 투자, G 는 정부지출, T 는 조세, r 은 실질이자율, M^s 는 명목화폐공급, M^d 는 명목화폐수요, P 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.)

$$Y = C + I + G$$

$$C = 200 + 0.5(Y - T)$$

$$I = 250 - 100r$$

$$G = 510$$

$$T = 300$$

$$M^s = 30,000$$

$$\frac{M^d}{P} = 2Y - 800r$$

$$P = 10$$

	균형 실질이자율	균형 국민소득
①	0.2	1,580
②	0.4	1,580
③	0.2	1,850
④	0.4	1,850

26.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.
-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가게는 화폐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투자 지출이 증가한다.
-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의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 경감함으로써 정부지출이 증가한다.
- ④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환율이 절하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.

27.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임금 경직성 이론
- ② 가격 경직성 이론
- ③ 착각 이론
- ④ 전망 이론

28.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인플레이션하에서 경제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구두창 비용과 기업들이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함에 따른 비용인 메뉴 비용이 초래된다.
- ② 인플레이션하에서 상대가격의 변화폭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한다.
- ③ 인플레이션하에서 조세의 왜곡이 발생한다.
- ④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은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예측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.

29.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,000만 명, 비경제활동인구는 200만 명, 실업자는 300만 명이다.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?

	경제활동참가율	고용률
①	85%	75%
②	85%	83%
③	90%	75%
④	90%	83%

30.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(R. Solow)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체감의 특징을 갖는다.
- ② 균형상태(steady state)에서 저축률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.
- ③ 저축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저축률을 높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.
- ④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면 초기 균형상태와 비교할 때 새로운 균형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.

31. 무역의존도의 산출식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?

- ① $(\text{수출액} - \text{수입액}) / \text{GDP}$
- ② $\text{GDP} / (\text{수출액} - \text{수입액})$
- ③ $(\text{수출액} + \text{수입액}) / \text{GDP}$
- ④ $\text{GDP} / (\text{수출액} + \text{수입액})$

32. 먼델-플레밍(Mundell-Fleming)의 $IS-LM-BP$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먼델-플레밍 모형은 완전한 자본이동과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다.
- ② 통화정책의 효과는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보다 상대적으로 유효하고, 재정정책의 효과는 변동환율제가 고정환율제보다 상대적으로 유효하다.
- ③ 먼델-플레밍 모형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인 $IS-LM$ 모형을 개방모형으로 확장한 모형이다.
- ④ 먼델-플레밍 모형은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의 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.

33. 헥셔-올린(Heckscher-Ohlin) 모형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
- ② 규모경제의 상대적 차이
- ③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
- ④ 기술수준의 상대적 차이

34.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무역이론은 무엇인가?

어떤 경제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(또는 노동)이 축적되는 등 요소부존량이 변하게 된다. 이와 같이 요소부존량이 변하면 재화의 생산량이 변하게 된다. 어떤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해당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, 다른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.

- ① 립진스키 정리(Rybczynski theorem)
- ② 헉셔-올린 정리(Heckscher-Ohlin theorem)
- ③ 레온티에프 역설(Leontief paradox)
- ④ 스톨퍼-사뮤엘슨 정리(Stolper-Samuelson theorem)

35. 산업내 무역(intra-industry trade)과 산업간 무역(inter-industry trade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를 반영하지 않는다.
- ② 산업간 무역은 비교우위를 반영한다.
- ③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작다.
- ④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유사성 정도에 달려 있다.

36. 관세(tariff)와 수입쿼터(import quota)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세는 가격규제 방식이고, 수입쿼터는 수량규제 방식이다.
- ② 관세는 수입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지만, 수입쿼터는 수입량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다.
- ③ 관세는 가격의 상승폭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, 수입쿼터는 가격의 상승폭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.
- ④ 관세와 달리 수입쿼터의 경우 수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된다.

37. 국제수지 조정에 있어서 지출전환정책(expenditure switching policy)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정정책
- ② 환율정책
- ③ 관세정책
- ④ 비관세정책

38. 외부충격 및 교란에 따른 환율의 단기적인 반응이 환율의 장기적인 반응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
- ① 환율의 스피로버(spillover of exchange rate)
- ② 환율의 오버슈팅(overshooting of exchange rate)
- ③ 환율의 언더슈팅(undershooting of exchange rate)
- ④ 환율의 캐리오버(carry-over of exchange rate)

39. 실질환율(real exchange rate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실질환율은 국내상품과 외국상품간의 교환비율인 상대가격을 말한다.
- ②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외국물가를 곱한 후 국내물가로 나눈 값이다.
- ③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.
- ④ 두 국가의 물가를 정의할 때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바스켓은 모두 동일하고 가중치의 차이가 없다.

40. 통화동맹(currency union)의 장점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거래비용의 경감
- ② 화폐주조차익의 상실
- ③ 국제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
- ④ 경제적 효율성 증대